

『三略』의 刊行과 版本 研究

A Bibliographical Study of 『Sam-Ryak(三略)』

남 권 희(Kwon-Heui Nam)*

〈목 차〉

- | | |
|-----------------------|--------------------|
| I. 머리말 | 3. 冊板目錄에 나타난 간행 기록 |
| II. 『三略』의 成立과 傳來 | IV. 諺解本 및 筆寫本 |
| III. 朝鮮時代 간행된 三略의 판본 | V. 맺음말 |
| 1. 壬亂 以前 版本 | 參考文獻 |
| 2. 壬亂 以後 版本 | |

초 록

이 연구는 고대 무경칠서 가운데 하나로 군사학 이론서로서인 삼략의 판본을 조사하여 판본에 대한 개괄적인 분석과 판본의 선후 문제 및 계통을 세우고자 하였다.

또한 아직까지 알려지지 않았던 새로운 판본과 연해본의 소개를 통하여 서지학 및 국어학 관련분야의 연구에 보탬이 되고자 하였다.

Abstract

This study attempts to bibliographic analysis of Sam Ryak(三略) which is contained one of Mu-Kyung Chil Seo(武經七書).

There were many print and publication of Sam Ryak(三略) in Cho-sun(朝鮮) Dynasty. This study collected related records seen at historical materials and systemize each book-edition.

Also an introduction of new Korean-translation Version(諺解本) of Sam Ryak(三略) printed in 1711 is considered to be a great help in the study of Korean Language especially in the late period of Cho-sun(朝鮮) Dynasty.

Key Words : ByungSeo(兵書), MuKyung-ChilSeo(武經七書), SamRyak(三略)

I. 머리말

우리나라는 고대로부터 내외의 많은 전쟁을 거치면서 군사사상과 전술 및 전법, 무기 등을 다루는 각종의 병서를 중국으로부터 받아들여 간행하고 필요시 우리의 실정에 맞도록 고쳐서 간행하였다.

임란이전까지는 『六韜』를 비롯한 武經七書의 간행이 주가 되었으며 임란 이후로는 중

* 경북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

• 접수일 : 2002. 8. 23 • 최초심사일 : 2002. 8. 28 • 최종심사일 : 2002. 9. 2

국의 다양한 兵書가 도입되어 조선의 병학 연구를 한단계 끌어 올리며 기본 兵書의 지속적인 간행과 아울러 『紀效新書』를 비롯한 『武藝諸譜』, 『兵學指南』, 『武藝圖譜通志』, 『兵學通』등 구한말까지 계속적인 간행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현재까지 전하는 책은 많지 않으며 그 중 고려시대 간행본은 전하는 것이 없고 조선 전기의 판본도 그 수가 많지 않다. 傳存本의 대부분이 조선 후기에 간행이 이루어진 것으로 중국의 책을 底本으로 하여 이를 우리의 여건에 맞게 수정, 보완하거나 혹은 새로운 군사 이론을 개발하여 독자적인 병서를 開刊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군사학 분야에서 두드러진 활동의 결과는 병서의 간행으로 집약되며 지금까지의 고병서에 관한 선행의 연구가 어느 정도 이루어졌으나¹⁾ 각각의 병서에 대한 개별적 연구는 『歷代兵要』, 『武藝圖譜通志』, 『兵學指南』, 『武藝諸譜』등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조선시대에 간행된 여러 병서들 중에서 『三略』은 중국의 고대 군사이론서로 『武經七書』가운데 하나이며 <孫子>, <吳子>와 더불어 언해본을 포함하여 여러 판본이 우리나라에서 유통되었다. 더구나 현존의 병서들 중에서 가장 먼저 번역되었으며 몇 차례의 번역 사실에 의하여도 三略의 중요성은 확인되어진다.

본고에서는 『三略』의 여러 판본을 조사하여 판본에 대한 개괄적인 분석과 판본의 선후 문제 및 계통을 세우고 아직까지 알려지지 않았던 새로운 언해본에 대하여 서지학 및 국어학적 분석을 통하여 관련분야 연구에 보탬이 되고자 하였다.

Ⅱ. 『三略』의 成立과 傳來

고대 중국에서는 기원전 12세기경에 저술된 『六韜』를 시작으로 漢代에 이르기까지 많은 병서들이 간행되었으며 당시까지 남아 전하는 종수도 한대에 15종, 남북조대에는 88종, 원대에 이르러는 230여종에 달하였고²⁾ 그 가운데 현재까지 전하는 대표적인 병서가 『武經七書』이다.

이 책은 北宋의 神宗 元豐元年(1078)에 각종 병서들을 모아 편집한 것으로 1080년에 武學의 經書로 인정받아 『兵學七書』 혹은 『武學七書』라고도 불리우며 기원전 1100년대부터 600년대에 이르는 동안에 이루어진 태공망의 『六韜』, 黃石公의 『三略』, 孫武의 『孫子兵法』, 吳起의 『吳子兵法』, 司馬穰苴의 『司馬法』, 尉繚의 『尉繚子』, 李靖의 『李衛公問對』를 모아 엮은 일곱가지 병서를 말한다.

1) 盧永九(1998). <朝鮮時代 兵書의 분류와 간행추이>, 『역사와 현실』, pp.281-304.

盧永九(2001), <壬辰倭亂 이후 戰法의推移와 武藝書의 刊行>, 『한국문화』 27집, pp.147-176.

육군본부(1979), 『古兵書解題』

2) 許保林(1990), 『中國兵書通覽』, 北京: 解放軍出版社, p.21.

이 무경칠서는 역대의 군사교범으로 활용되어 왔으며 조선시대에는 무과의 필수과목으로 채택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많이 사용되었던 만큼 조선시대 왕실의 도서관에도 고루 비치되어 있었던 병서가 많았으며 이를 통하여 중국의 병서가 얼마만큼 조선에서 이해되고 다시 출판하여 사용하고 있었던가를 잘 살펴볼 수 있다. 현존하고 있는 목록을 통하여 볼 때 正祖 16년(1792) 무렵에 조선에서 간행되어 奎章閣 西庫에 소장되어 있었던 병서들은 다음의 표와 같다.

[표-1] 규장각 서목에 수록된 병서목록

①西庫藏書錄	②西序書目	③西序書目草本	著者
六韜	六韜	六韜	周 呂望 ①②③
三略	三略	三略	奏 黃石公 ①②③
司馬法	司馬法	司馬法	齊 司馬穰苴 ①②③
司馬法直解	司馬法直解	司馬法直解	明 劉寅 ①②③
吳子	吳子	吳子	魏 吳起 ①②③
孫武子	孫武子	孫武子	吳 孫武 ①②③
尉繚子	尉繚子	尉繚子	奏 尉繚 ①②③
尉繚子直解	尉繚子直解	尉繚子直解	明 劉寅 ①②③
李衛公	李衛公	李衛公	唐 李靖 ①②③
武經總要	武經總要	武經總要	宋 曾公亮 ①②③
將鑑	將鑑	x	戴溪 ①②③
將鑑博議	將鑑博議	將鑑博議	戴溪③
東國兵鑑	東國兵鑑	x	
演機新編	演機新編	演機新編	
兵將圖說	兵將圖說	x	
神器秘訣	神器秘訣	神器秘訣	
陳說	陳說	x	河崙②
行軍須知	行軍須知	行軍須知	金堉③
陳圖戰法	陳圖戰法	陳圖戰法	
陳法	陳法	x	韓繼禧②
紀效新書	紀效新書	紀效新書	明 戚繼光①
火砲式諺解	火砲式解	火砲式諺解	李 曙③
制勝方略	制勝方略	x	
續兵將圖說	x	x	
肄陣總方	x	x	
兵學通	x	x	
兵學指南	兵學指南	兵學指南	本朝柳成龍 ①②③
武藝圖譜通志	x	x	
	孫武子直解	孫武子直解	明 劉寅②
	吳子直解	吳子直解	明 劉寅②
	公明心書	公明心書	唐 李靖②
	李衛公直解	李衛公直解	明 劉寅②

	練兵實紀	練兵實紀	明 戚繼光②
	紀效新書節要	紀效新書節要	未詳③
	武藝諸譜	武藝諸譜	本朝 韓嶠②
	統營合操圖	x	
	火炮式	x	
	馬經	馬經	唐 穆鏊②③
	馬經諺解	馬經諺解	本朝 李曙③
	新法煮硝	新法煮硝	金持南③
	壇究捷錄	壇究捷錄	崔國亮③

이 시기의 서목은 대체로 정조 15년, 16년, 19년에 편찬되었던 것³⁾으로 소장된 한국본을 대상으로 저록된 것이며 시대마다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무경칠서의 한국 전래에 대한 정확한 기록은 남아있지 않으나 본격적인 간행이 이루어진 것은 현존하는 판본으로 미루어 그 시기를 대략 15세기 후반으로 추정할 수 있다.

무경칠서 가운데 하나인 『三略』은 黃石公이 찬한 것으로 『史記』에 수록된 그의 사적에 의하면 황석공은 圯上老人이라고도 하였는데 圯上은 江蘇省에 있던 다리가 圯橋라고 부른데서 나온 말로 張良이 황석공에게 태공 병법을 받은 곳이다.

‘圯橋取履’라는 말도 여기서 나온 것으로 장량이 圯橋에서 황석공이 다리 밑에 떨어뜨린 신을 주워다가 그에게 신계 하고 병서를 받은 고사에서 나온 말이다. 그래서 후세 사람들은 이 책을 『黃石公三略』이라고 불렀다.

三略이란 이름은 魏나라 李康의 『運命論』에 처음 인용되어 보이는데 北齊 때 魏收의 『魏書』중에 劉昫이注를 한 『黃石公三略』이 있다. 그리고 최초의 著錄으로 나타난 것은 『隋書』〈經籍志〉에 보이며, 『漢書』〈藝文志〉에는 저록되어 있지 않다.

이러한 기록은 四庫全書에 나타난 『黃石公三略』의 〈提要〉⁴⁾를 살펴보다도 전체 3권으로 된 삼략은 중국의 漢, 唐의 서적을 주로 수록한 『隋書』〈經籍志〉에 처음 수록되었으며 孫子, 吳子와 더불어 七書 가운데 한 책이라고 하였다. 서목에서의 저록은 『隋書』〈經籍志〉 이후 역대의 書目에 계속하여 수록되었다.

한편 삼략과 혼란되어 쓰이거나 잘못 인식되어져 왔던 비슷한 서명 『黃石公素書』는 그 분량이 전체 1권으로 宋의 張商英이註하여 1편은 ‘原始’, 2편은 ‘正道’, 3편은 ‘求人之志’, 4편은 ‘本德宗道’, 5편은 ‘遵義’, 6편은 ‘安禮’의 모두 6편으로 나누어 엮은 것⁵⁾으로 三略과

3) 南權熙(1983), <奎章閣 書庫와 그 書目 分析>, 『奎章閣』7, pp.125~185.

4) ‘...臣等謹案黃石公三略三卷始見於隋書經 / 籍志云下邳神人撰成氏注唐宋藝文志所 / 載並同相傳其源出於太公圯上老人以一 / 編書授張良者即此本宋時嘗頒之武學與 / 孫吳諸子並稱七書而先儒多疑其僞作蓋 / 自漢以來兵家之言往往以黃石公爲名史 / 志所載有黃石公記三卷黃石公略注三卷 ...’

5) 臣等謹案黃石公素書一卷舊本題宋張 / 商英註分爲六篇一曰原始二曰正道三曰 / 求人之志四曰本德宗道五曰遵義六曰安 / 禮黃震日抄謂其說以道德仁義禮五者爲 / 一體..

는 별도의 책으로 전해진 것이다. 『清芬室書目』에 따르면 明宗朝의 간본으로 『黃石公素書』 1권 1책이 있었으며 이 책은 권두에 張商英의 서문이 있고 권수제는 ‘黃石公素書에 권말의 간기 사항으로 ‘嘉靖庚戌歲孟夏望吉重刊’의 기록이 남아 있으며 許篈 續撰본인 『攷事撮要』의 綾城 책판조에 수록되었다⁶⁾고 언급하고 있다.

『黃石公三略』은 원래의 서명이 『黃石公記』이며 가장 빠른 기록은 『後漢書』〈藏官傳〉이며 이미 삼국시대부터 『三略』이라 불리었다.

이러한 사학적 고증과 최근의 <黃石公三略淺說·概說(1986)>을 통하여 삼략의 사상체계, 사용언어, 출토병서, 인용문, 고문헌의 기록, 저서목록의 여섯 분야에 대한 검토를 통하여 『黃石公三略』은 張良이나 黃石公이 저술한 것이 아니며 西漢 말년의 방법을 잘 알고 張良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었던 漢代의 이름 모르는 선비에 의하여 이루어졌거나 후인에 의해 의탁된 저술로 추정되고 있다.⁷⁾

『三略』은 본문이 모두 4,000여 자이고 上·中·下 의 3권으로 나누어 상권은 66略, 중권은 21略, 하권은 34略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주요한 내용은 임금과 장수의 治國, 整軍하는 도에 관한 것과 사람을 쓰고 군사를 통솔할 때에 통치방법과 措置, 施政의 문제에서부터 마땅히 준수해야 할 규범 등에 대하여 기록하였다.

국내의 유통본은 여러 종이 있으며 관련되거나 유사한 서명은 대체로 漢文本에서는 『三略』, 『三略直解』, 『新刊增註三略直解』, 『黃石公三略直解』가 나타나며 언해주석본의 권수제는 『新刊三略諺解』, 『新刊增補三略』 등으로 나타난다.

Ⅲ. 朝鮮時代 간행된 三略의 판본

1. 壬亂 以前 版本

1) 기록에 나타난 『三略』의 간행

사료에 나타난 『三略』의 간행 관련 기록을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앞서 언급한 것처럼 『三略』이 단독으로 간행된 경우는 드물며 『武經』 또는 『武經七書』의 간행에 함께 포함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世祖 5年(1459)에는 校書館으로 하여금 <武經> 18 권을 刊印케 하여 咸吉道에 보내었으며⁸⁾ 世祖 10年(1464)에는 왕이 武經口訣을 정하고 崔恒 등이 奉命

6) 李仁榮, 『清芬室書目』, 서울 : 寶蓮閣, 1968(影印), p.176.

‘...宋張商英註明宗朝刊木板四周雙邊有界每半葉九行行十七字匡郭長二〇〇浬廣一四〇浬前有張商英序卷首題案黃石公素書次行中大夫尙書左丞張商英註卷尾有嘉靖庚戌歲孟夏望吉重刊校許篈續撰本攷事撮要城册板有此書’

7) 許保林(1990), 『中國兵書通覽』, 前掲書, p.127.

讎校하여 註解하였다⁹⁾고 하여 다분히 『三略』까지 포함되었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단독으로의 서명은 언급되어 있지 않다.

成宗 4年(1473)에는 왕이 魚有沼에게 『綱目通鑑』, 『少微通鑑』, 『宋元節要』, 『左傳』, 『將鑑博議』, 『武經』, 『小學』각 1件을 내린 바 있으며¹⁰⁾ 成宗 25年(1494)에는 明에서 돌아온 사신들이 『輯註武經七書』와 『陳書』를 올렸으며¹¹⁾ 이듬해(1495) 12월에는 武士들로 하여금 『武經』을 읽게 하고 『對款議頭』 등의 서책을 간행하여 배포케 하였다.¹²⁾ 다만 이때의 기록들 중에 ‘武經’이라는 것이 독립된 서명인지 ‘武經七書’를 대표하는 일반명사의 형태로 쓰여진 것인지는 명확하지 않다.

이러한 기록에 의하여 『三略』을 포함한 여러 병서의 유통은 중국으로부터의 입수, 간행, 배포 및 내사의 절차를 거쳐 유포가 되었음을 알 수 있다.

2) 실물자료에 의한 판본

(1) 乙亥字本 三略直解 (1577년 이전)

이 책은 을해자로 간행된 것이며 책 면지의 내사기에 萬曆 5年(1577)에 훈련원의 주부벼슬을 하던 文夢軒에게 1건을 내린 내사 기록이 남아 있다.

萬曆五年十月 日 /
內賜訓練院主簿文夢軒黃石公一件 /
命除謝 /
恩

都承旨臣尹 [手決]

제 1장의 우측상단 5행에 걸쳐 ‘宣賜之記’의 내사인기가 있으며 본문의 상단 여백에는 묵서로 된 한자의 약체구결이 나타난다.

형태사항으로 책의 크기는 32.1×20.6cm로 판식의 형태는 四周雙邊에 반광의 크기 22.3×15.7cm, 아래위 大黑口이며 上下內向細六瓣花紋魚尾이다. 판심제는 ‘三略’으로 본문은 9행 17자를 기본으로 하고 있으며 木活字를 補字로 사용하고 활자의 마모 상태가 심한 것으로 보아 乙亥字의 後期補字本으로 여겨진다.

본문의 체제는 다른 판본과 동일하여 上·中·下 세권이 1책으로 합철되어 있다. 상권의 시작은 ‘三略直解 卷之上’의 卷首題와 부분 제목인 ‘上略’과 더불어 ‘前 辛亥科 進

8) 『世祖實錄』卷17 世祖 5年 7月 甲寅.

9) 『世祖實錄』卷34 世祖 10年 9月 戊午.

10) 『成宗實錄』卷29 成宗 4年 4月 壬寅.

11) 『成宗實錄』卷294 成宗 25年 9月 庚丑.

12) 『燕山君日記』卷11 燕山君 元年 12月 辛亥.

士 太原 劉寅 解...'라는 주해자를 밝히고 있으며 中卷은 시작은 다시 '三略直解 卷中' 및 다음 행에 '中略'이라 적고 있다. 中卷의 권말에 '三略直解 卷中終'이라 적고 다음 페이지에 하권이 이어지는데 역시 '三略直解 卷下'와 다음 행에 '下略'의 제목을 붙였다. 下卷의 권말에는 앞의 체제와는 다르게 '黃石公三略直解終'이라고 권말제를 달리하고 있다.

본문의 전개는 삼략의 원문에 이어 한 자 낮추어 劉寅의 解를 적었으며 권별의 수록분량은 상권은 66略, 중권은 21略, 하권은 34略으로 모두 121 略을 수록하고 있다.

이 내사본은 경북대학교 도서관 취암문고에 소장되어 있으며 같은 을해자본인 일본의 국회도서관본은 표지가 개장된 채 '讀書堂藏', '帝國圖書館藏'의 장서인이 날인¹³⁾되어 있으며 山氣文庫本에서는 앞에서 언급된 내사본과 같은 날짜의 기록인

萬曆五年十月日 /
內賜黃石公一冊 /
命除謝 /
恩 /

都承旨臣尹[手決]

의 내사기록¹⁴⁾이 남아있다고 알려져 있으나 책을 받은 기관이나 사람에 대한 기록이 없어서 후대의 사람에 의하여 어떠한 연유로 지워지거나 제거된 것으로 판단된다.

2. 壬亂 以後 版本

壬辰倭亂은 조선의 병학 연구와 병서의 간행에 새로운 전기를 가져다 주었다. 壬亂이 수습되자 중앙에서는 국방수비를 위한 방안으로公私賤을 막론하고 병사들을 선발하여 훈련시켰으며 무엇보다 시급한 兵書의 부족을 보완하기 위하여 간행을 서둘렀다.

『武經七書』 등의 기본 병서에 대한 지속적인 재간행과 더불어 『紀效新書』 등 중국의 새로운 병서들이 다양하게 도입되고 영, 정조대에 이르러서는 기존의 병서 정리 작업과 동시에 우리의 독자적인 병서들이 속속 간행되었다. 현존하는 『三略』판본의 대부분도 이 시기 이후에 이루어진 것이다.

임란 이후의 삼략의 간행 기록은 宣祖 40年(1607)에 戶曹, 禮曹, 校書館에 명하여 『武經七書』를 乙亥字와 庚辰字로 인출하고 1책을 全羅道에 보내 종이를 준비시켜 300件을 인출하여 上送頒賜케 하였고¹⁵⁾ 純祖 5年(1805)에는 京城의 廣通坊에서 『新刊增補三略直解』

13) 沈喁俊(1988), 『日本訪書誌』, 성남 : 韓國精神文化研究院, pp.359~360.

14) 國學資料保存會(1974), 『山氣文庫目錄』, pp.150~151.

15) 『宣祖實錄』卷210 宣祖 40年 4月 乙未.

‘...王世子問安以內出武經七書傳于柳公 / 亮曰此武經七書不秩其不秩之卷有處求得全秩二三件以 / 乙亥庚

의 인쇄본을 중간하였다.

이 중 1607년의 기록에서 乙亥字와 庚辰字는 임진왜란을 통하여 없어진 것이나 이 때 다시 이 활자의 명칭을 사용한 것은 당시 설치되었던 훈련도감에서 만들어진 훈련도감자 중 乙亥字, 庚辰字體를 만들어 부족한 서적을 많이 찍어냈음을 볼 때 이 당시 만들어진 활자를 지칭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1) 竹川書堂版 三略直解 (1600 年)

이 책은 목판본 3권 1책으로 표지는 훼손이 심하여 표지서명을 알 수 없으며 상권의 권수제는 ‘三略直解卷之上’이다. 책의 전체 크기는 29.2×19.5cm에 분량은 모두 39장으로 각권마다 장차를 따로 매기고 있다.

책의 외형면에서 권수와 권말 부분의 훼손이 심하여 본문의 일부가 결락되었다. 형태사항으로 자열은 12행 19자로 배열하고 있으며 판식은 사주단변에 광곽의 크기 20.1×16.2cm, 백구가 대부분이며 간혹 흑구가 보인다. 어미는 불규칙하여 흑어미, 4판어미, 유문어미 등이 혼재하고 있다.

판심제를 ‘石公’으로 한 것이 특이하며 각권마다 ‘三略直解’라고 권수제와 권말제를 달고 있지만 하권에서는 ‘黃石公三略直解終’으로 권말제를 달리하고 있다.

권말에는 나타난 간기사항 ‘萬曆庚子孟夏 / 竹川書堂新刊’으로 보아 1600년 4월 죽천서당에서 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같은 판식의 책이 延世大學校 圖書館¹⁶⁾과 山氣文庫¹⁷⁾, 啓明大學校¹⁸⁾ 등에 소장되어 있으나 연세대학교 소장본은 권말의 간기사항은 목록상으로 확인되지 않는다.

(2) 濟州版 三略直解 (1640년)

이 책은 계명대학교 도서관 소장의 木板本이며 크기는 29.4×19.5cm의 線裝本으로 제본되어 있다. 체제는 서문이 없이 권수제면에 ‘三略直解 卷之上’으로 시작하여 ‘三略直解 中, 三略直解 下’로 표기되어 있다.

版式은 四周雙邊에 半匡의 크기가 20.8×14.4cm의 판면에 9행 17자를 배열하고 版心의 형태는 上下白口에 上下內向黑魚尾가 주를 이루고 일부는 불규칙적으로 有紋魚尾가 보이고 版心題는 ‘三略’이다. 책의 紙質은 닥종이에 세로 발끈폭이 1.8cm 정도이다.

전체적으로는 17세기 이후에 이미 壬亂前에 內賜되었던 乙亥字로 간행된 판을 底本으로 翻刻한 것으로, 版口부분과 판의 전체 크기가 번각의 관계로 줄어들었을 뿐 글자의 특

辰字刻日印出入內又一件下送于全羅道急速開刊 / 令戶曹紙地措備三百件印出粧緘上送頒賜事言于戶曹禮 / 曹校書館...

16) 延世大學校 中央圖書館(1987), 『古書目錄(제2집)』, p.121의 고서 일련번호 1083편.

17) 國學資料保存會(1974), 『山氣文庫目錄』, p.151.

18) 啓明大學校 中央圖書館(1987), 『古書目錄』, p.163.

성은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제15장과 제16장은 그 서체가 다른 장보다 둥근 筆書體가 더욱 가미되어 다른 부분과 구분되고 판각의 마모현상도 다른 장과 비교할 때 비교적 덜 마모되었으므로 없어지거나 剋缺된 부분을 후대의 어느 시기에 補刻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전체의 장차는 上略이 1-33張, 中略이 별도의 면수 매김을 하여 1-10張, 下略도 1-16張으로 을해자본의 그것과 같이 이루어져 있고 하락의 권말에 다른 판본과의 비교적 관점에서 ‘黃石公三略直解’로 표시되어 있다.

다른 판본과 구분이 되는 가장 중요한 점은 권말의 간기사향과 출판을 주도하였던 당시의 인물에 대한 기록이 있는 바, 제주도에서 沈演 등의 주관으로 간행되었던 것이다.

通政大夫 行濟州牧使兼 兵馬 /
 水軍節制使 守防禦使 沈演 /
 通訓大夫 行濟州牧判官 濟州鎮 /
 兵馬節制都尉兼 監牧官 金凜 /
 監校官 通訓大夫 行濟州審藥 韓忠敏 /
 監校官 軍官前司果 沈滄 /
 監校官 軍官前司果 柳昌三 /
 監刻鎮撫 金尙吉 /
 ‘庚辰元月 上幹 濟州開刊’

권말 기록에 있는 沈演(1587~1646)은 李适의 난과 丁卯胡亂을 거치면서 德政의 업적을 인정받아 仁祖 13年(1635)에 경상도 관찰사로 승진되었으나, 丙子胡亂 패전의 책임을 물어 유배 생활을 하던 중 同王 16年(1638)에 사면되어 제주목사로 부임한 인물이다. 沈演이 가장 상위에 나타나는 것으로 미루어 <三略直解> 제주 간본은 그가 제주 목사로 재직 중에 韓忠敏, 沈滄, 柳昌三, 金尙吉 등이 일을 분담하여 仁祖 18年(1640)에 추진하여 간행된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권말에 나타난 이 기록과 같은 판본이 있어서, 역시 같은 제주에서 간행된 『吳子直解』에도 완전히 일치하는 관직명, 인명, 간기가 새겨져 있다. 이로 말미암아 당시에 兵書들을 제주관에서 일괄하여 간행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판본으로 볼 때 『吳子直解』는 을해자본이 아닌 다른 활자본을 번각의 저본으로 사용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吳子直解』도 『三略』과 같이 명나라 洪武年間의 進士 출신인 劉寅이 직해한 것으로 圖國, 料敵, 治兵, 論將, 應變, 勵士에 관련된 내용을 2권 1책으로 구성하고 있으며 특히 제주간본에는 呂男, 梁男, 文允, 淮男, 益南 등 5명을 포함한 12명의 각수명이 版心の 아래 魚尾에 음각으로 나타난다.¹⁹⁾

19) 南權熙(2001), <濟州道 刊行의 書籍과 記錄類>, 『古印刷文化』제 8집, p.232.

(3) 丙午年 私板 黃石公三略直解 (17세기중, 후반추정)

이 책은 목판본 3권 1책으로 책의 크기는 25.5×19.8cm이다. 본문은 모두 37장으로 장차는 권차와 관계없이 일련으로 매겨져 있으며 본문의 체제는 11행 22자로 되어 있다. 권수제는 ‘黃石公三略直解’이고 판심제는 ‘三略’으로 새기고 있으며 권말에 나타난 간기사항은 ‘丙午正月日 私板’이라 적고 있다.

판의 형태는 사주단변에 광곽의 크기 19.9×16.2cm로 계선이 있고 白口에 上下內向有紋魚尾가 나타나 책의 간행 시기가 17세기 중, 후반임을 짐작케 한다.

권말에 나타난 ‘丙午年正月日 私板’의 간기와 판심의 어미와 글자의 새김이 조잡함으로 미루어 사가에서 개인적으로 간행한 것으로 추정된다.

(4) 戊申字本 新刊增註三略直解 (17세기 후반, 18세기 초)

이 책은 무신자 인본으로 3권 1책이다. 책의 전체크기 33.0×21.0cm에 본문의 자열은 10행 18자, 소자쌍행으로 배열하고 있다.

형태면에서 판식은 四周雙邊에 광곽의 크기는 25.2×17.1cm이며 版心은 上下 白口에 上下內向花紋黑魚尾로 나타난다.

각권의 권수제와 권말제는 모두 ‘新刊增註三略直解’로 하였으며 판심제는 ‘三略直解’로 적고 있다. 상권의 제1장 권수제면이 탈락되었으며 본문의 사이에는 구결이 쓰여져 있고 삼략의 원문에 뒤이어 劉寅의 直解가 한 칸 낮추어 배열되어 있다.

한편 다른 판본이나 이 책의 후쇄본과 비교하였을 때 본문의 上略 제 43장 4행의 ‘...與人樂樂之義無[德]之君以...’에서 ‘德’자가 脫字되어 있다.

보존 상태면에서 판심부분에 약간의 손상이 있으나 본문의 상태는 온전한 편이다. 간행 시기는 간기가 나타나지 않아 정확히 알 수 없으나 補字의 사용없이 인면이 선명하고 3엽화문어미가 나타난 것으로 미루어 무신자 초기인본으로 보이며 시기는 대략 17세기 후반에서 18세기 초에 간행된 것으로 여겨진다.

(5) 甲寅字系 翻刻版 新刊增註三略直解 (17세기 추정)

이 책의 전체 장수는 52장에 본문의 2장이 결락된 불완전본이다. 목판본 3권 1책으로 표지와 판심부의 훼손이 있으나 본문의 판독에는 어려움이 없다.

표지 서명은 알 수 없으며 권수제는 ‘新刊增註三略直解’로 花口題는 ‘三略’으로 적고 있다. 장차는 권차가 달라져도 일괄로 매겨져 있다.

형태면에서 책의 전체크기는 31.3×20.9cm이며 본문은 10행 18장에 소자는 쌍행으로 글자를 배열하고 있다. 판식은 사주단변에 광곽의 크기는 22.0×16.2이며 界線이 있고 白口에 上下內向有紋魚尾이다.

전체적으로 보아 이 판본은 대표자의 특징으로 볼 때 갑인자 계열의 번각본으로 추정되고 판식이나 어미의 형태로 판단할 때 그 간행의 시기가 17세기로 추정되므로 그 底本이 되는 판본은 임난 전의 갑인자 계열 활자가 되어야 한다. 그러나 번각과 후쇄의 과정을 거치는 동안 전체적으로 줄어든 모습이다.

또 갑인자 계열 중 비슷한 시기의 무신자본과 비교할 때 행자수의 배열은 같으나 下略의 第 43張부터는 한 줄 밀리게 되는 차이를 보이므로 저본이 무신자본이 아님은 확실하고 또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戊申字本은 '德'의 한 글자가 빠져 있는 오류를 범하고 있으나 여기서는 완전함이 서로 다르다.

(6) 黃石公三略直解 (17세기 말경 추정)

이 책은 목판본 3권 1책으로 표지 서명은 '黃石公三略直解'로 묵서되어 있다. 전체 58장으로 된 이 책의 크기는 25.2×20.0cm이며 형태면에 있어서 본문은 9행 17자로 배열되어 있다.

판식은 사주단변에 광곽의 크기 18.5×15.0cm로 계선이 있으며 판심은 백구에 상하내향 유문어미의 형태이다. 판심제는 '三略'으로 새겼으며 각권의 장차는 따로 매기고 있다.

본문의 문장중에는 墨筆 口訣이 있으며 상권의 권수제는 '黃石公三略直解 卷之上'이며 각권마다 권수제와 중간 제목을 따로 적고 있으며 하권의 권말제는 '黃石公三略直解終'로 새겼다.

비록 간기는 나타나지 않지만 字体나 有紋魚尾, 黑魚尾가 나타난 판식의 특징으로 보아 간행시기는 대략 17세기 후반에서 18세기 중반에 해당되는 시기일 것으로 추정된다.

다분히 증주본은 무신자본이 간행된 이후에 주로 간행되었으므로 17세기 말경에 간행된 판본일 가능성이 높다고 하겠다.

(7) 陶活字版 三略直解 (1722년)

이 책은 일본인 鮎貝房之進²⁰⁾이 도활자본으로 소개한 책이며 그 근거는 권말에 나타난 '上之二年壬寅三月 青海 文會軒 陶字契 新刊'의 간행기록을 들었다. '上之二年壬寅'은 景宗 2년(1722) 이고 青海는 함경북도의 북청군의 별칭이므로 청해의 문화헌 도자계에서 도활자를 만들어 간행하였던 것으로 보았다.

이 책에 대하여 金斗鍾은 '文會軒 陶字契'가 북청지방 사람들이 모여 시문을 읊기 위해 조직한 契帖의 이름이지 도활자를 만들어 책을 찍어내기 위한 조직이 아니라는 연유에서 목활자본으로 주장²¹⁾하였다.

20) 鮎貝房之進(1941), <支那及朝鮮之古活字>, 『書物同好會會報』冊子 第10號 附錄.

21) 金斗鍾(1980), 『韓國古印刷技術史』, 서울 : 探究堂, pp.348~351.

金斗鍾(1984), <近世朝鮮後期活字印本에 關한 綜合的考察>, 『大東文化研究』4집, pp. 66~69.

이에 대하여 천혜봉은『東溟先生集』을 도활자본으로 소개하면서 『三略直解』의 인본 실물에 서도 글자획에 나무결이 보이지 않으며 글자 획의 굵기가 나무활자에 비하여 많이 떨어지는 등 같은 특징이 나타나 도활자본으로 판별하여 발문기록에 나타난 ‘靑海文會軒 陶字契新刊’의 ‘陶字契’는 ‘陶活字契’로 해석함이 옳다²²⁾고 주장하여 상반된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8) 箕營版 新刊增註三略直解 (1750년판)

이 책은 계명대학교 도서관 소장본으로 표지에 ‘三略 全’이라墨書되어 있고 전체의 크기는 31.1×20.8cm의 線裝本으로 제본되어 있다. 체제는 서문이 없이 권수제면에 新刊增註三略直解 上’으로 시작하여 ‘新刊增註三略直解 中, 新刊增註三略直解 下’의 표기로 여타의 增註本과 다름이 없다.

版式은 四周雙邊에 半匡의 크기가 19.7×16.1cm의 판면에 10행 18자를 배열하고 小字는 쌍행으로 처리하였다. 版心의 형태는 上下白口에 上下向四瓣花紋黑魚尾와 版心題는 ‘三略直解’로 시기적으로 18세기 후반이후에 판각된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전체의 장차는 上略이 1-31張, 中略이 32-40張, 下略은 41-54張으로 이루어져 있고 하략의 권말에 다른 판본과의 비교적 관점에서 일부 판본에 나타나고 있는 ‘黃石公三略’이 아닌 ‘新刊增註三略直解 下’로 표시되어 있다.

이 책은 본문의 자행이나 자수 등의 체제가 무신자본과 동일하게 나타나 무신자본을 저본으로 새긴 重刊本으로 전술하였던 무신자본에서 실수로 누락시킨 본문의 下略 제43장 4행의 ‘德’자를 추가하여 같은 장의 6행에 한 자가 늘어나는 차이를 보여 중간 당시 교정하여 판각하였음을 알 수 있다.

다른 판본과 구분이 되는 가장 중요한 점은 권말의 간기사항으로 제54장의 권말제 아래 사각형의 테두리에 木記로 ‘庚午仲夏 箕營開刊’이라는 기록이 본문의 筆書體와는 달리 굵은 印書體로 새겨져 있다. 箕營은 평양에 설치되었던 감영을 지칭하며 이 때의 庚午는 1690년이나 1750년에 해당될 것으로 형태적인 특징 등으로 미루어 다분히는 1750년경으로 여겨진다.

또 후술할 1805년본에서 箕營版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으므로 그 보다 빠른 시기에 간행된 판본임에는 틀림없다.

(9) 禿用山城版 新刊增註三略直解 (18세기 중엽)

이 책은 목판본 3권 1책이며 책의 크기는 31.3×19.8cm이며 전체 54장으로 되어있다. 보존상태는 온전한 편이며 본문의 내용은 10행 18자를 기본으로 소자쌍행으로 배열되어 있다. 형태면에서 판식은 사주쌍변에 광곽은 24.3×16.6cm의 크기에 계선이 있으며 판구

22) 千惠鳳(1995), <陶活字本『東溟先生集』의 발굴>, 『書誌學報』제15호, pp.3~15.

는 백구에 상하내향화문어미를 띠고 있다. 상권의 권말에 간기가 나타나고 각권의 권수에 ‘新刊增註三略直解’의 卷首題와 版心題 ‘三略直解’를 표시하였다.

상권의 권말 기록에 의하면 의하면,

司馬之家 不可無者三略 而本道 /
無刊處 故戊午十二月日 定畧將軍 /
禿用山城 別將 都是瞻 桔 裾 /
開刊 以爲傳播之地 /

라고 하여 삼략은 병가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될 책이나 본도에서는 간행된 곳이 없으므로 무오년 12월에 定畧將軍인 禿用山城의 別將 都是瞻이 즉시 간행하여 널리 전파하고자 하였다.

간기에 나타난 禿用山城은 경상북도 성주군 가천면에 있는 성곽으로 임진왜란 이후 兵馬節度使에 예속된 병영이 설치되기도 하였으며 주변지역까지 방어하는 교통의 요충지에 자리하고 있어서 당시 군사상 중요한 기능을 하였던 곳이다.

간행의 시기를 추정함에 있어 글자의 형태나 판심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앞선 무신자본의 번각본이며 또한 간기에 나타난 ‘戊午年’의 간지를 고려할 때 18세기 중엽인 1738년 내지는 1798년에 간행되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무신자본의 번각본인 이 책에서는 무신자 원본에서 脫字된 본문의 제 43장 제 4행 ‘...與人樂樂之義無[德]之君以樂樂自己..’의 ‘德’자를 번각시에 추가하고 있어서 번각 당시 교정을 철저히 보고 간행하였음을 알 수 있다.

권말의 여백에는 ‘冊主 義興朴氏’라는 목서의 기록이 있다.

같은 판으로 찍은 후쇄본도 전하며 상권의 권말 간기 사항은 동일하고 4행 뒤를 이어 ‘壬子年十二月日讀’이라고 쓰여져 있다.

(10) 完山版 新刊增註三略直解 (1777)

이 책은 권말에 음각으로 ‘丁酉春 完山開刊’이라고 새겨져 있다. 목판본 1책으로 형태면에서 책의 크기 29.6×19.7cm이며 본문 45장에 반광의 크기는 18.5×16.3cm이다. 판식은 사주단변에 흑구가 없으며 上下內向花紋魚尾로 본문의 체제는 11행 20자를 기본으로 하고 소자쌍행으로 되어 있다.

본문의 전체는 다음 표와 같은 체제에 삼략의 원문은 한 칸 올려 배열되어 있고 유인의 직해는 뒤를 이어 한칸 낮추어 쓰고 있다.

이 책은 책의 보존 상태면에서 표지나 상단의 일부 파손이 있지만 본문 부분은 훼손이 없다.

동일한 판본이 경북대학교 취암문고와 계명대학교²³⁾, 산기문고²⁴⁾, 용인대학교²⁵⁾, 고려

대학교²⁶⁾ 등에 소장되어 있으며 취암문고본은 본문의 모든 형식과 체제가 동일하나 권말의 간기면을 양각으로 새긴 차이를 보인다.

간행의 시기는 후술할 1805년 광통방 언해본에서 全州板을 대조하였다는 언급이 있으므로 그 이전의 시기로 책의 형태적인 특징을 고려하여 볼 때 正祖 1년(1777)에 간행된 것으로 판단된다.

(11) 新刊增註三略直解 (19세기 초반)

이 책은 목판본 3권 1책으로 전체 54장이다. 권수제는 ‘新刊增註三略直解’이고 花口題는 ‘三略’으로 새겼다.

형태상 판식은 四周單邊에 匡廓의 크기는 21.6×14.3cm에 계선이 있으며 본문의 글자는 10행 18자에 小字를 쌍행으로 배열하였고 백구에 上下內向白魚尾를 취하고 있다.

장차는 권수에 상관없이 일괄적으로 매겼으며 판본의 자행, 자수, 내용의 순서나 글자의 위치까지 모든 면에서 戊申字本과 동일하게 나타나지만 번각본은 아니며 새로운 필사자에 의하여 筆寫本이 다시 작성된 후 그 체제를 유지하여 새긴 중간본이다.

간행에 관련한 어떠한 기록도 없으나 경북대학교 도서관의 취암문고본에 의하면 권말의 면지에 ‘嘉慶九年甲子開板 / 同治十年壬申改衣’라고 묵서되어 있어서 純祖 4년(1804)에 개판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으나 확실하지 않다.

(12) 新刊增註三略直解 (19세기 후반)

이 책은 목판본 3권 1책으로 전체 54장으로 이루어졌으며 책의 크기는 27.5×18.5cm이다. 판식주기는 사주단변에 광곽의 크기는 21.0×13.7cm에 소자쌍행으로 黑口가 없는 上下內向白魚尾에 본문은 10행 18자를 배열하고 있다.

권수를 달리하여도 장차는 일괄적으로 매겨져 있으며 각권의 시작에는 ‘新刊增註三略直解’의 권수제를 표기하였다.

본문의 상단여백과 본문의 사이사이에 묵서로 된 한자의 略體口訣이 나타나며 지질은 얇은 닥종이에 세로 발근폭 2cm 정도이며 白魚尾의 형태로 보아 간행 시기는 19세기 후반으로 보인다.

(13) 三略直解 (19세기)

이 책은 목판본 3권 1책으로 책의 크기는 29.8×20.1cm에 하권의 권말의 본문 3장이 결

23) 啓明大學校 中央圖書館(1987), 『古書目錄』, p.164.

24) 國學資料保存會(1974), 『山氣文庫目錄』, p.151.

25) 龍仁大學校 傳統文化研究所(2000), 『古書目錄』, p.101.

26) 高麗大學校 中央圖書館(1984), 『漢籍目錄(舊藏)』, p.211.

락된 불완전본이다.

표지는 훼손이 심하여 표지서명을 알 수 없고 半匡은 21.5×15.5cm의 크기에 본문의 자열은 12행 19자를 배열하고 있다. 형태면에서 版式은 사주 단면에 판심부분의 훼손이 심하나 확인가능한 부분으로 보아 上下內向花紋黑魚尾를 띠고 있으며 界線은 있고 상하 대흑구에 版心題는 '石公'으로 새기고 있다.

삼략의 원문에 이어 劉寅의 解가 이어지는 형식으로 되어 있으며 본문에는 계속해서 묵서로 쓰여진 한자의 구결이 나타난다.

영남대학교 도서관 동빈문고 소장본으로 간행시기는 판의 형태, 지질이나 판식의 여러 면을 고려할 때 19세기경에 간행된 판본으로 여겨진다.

이상의 판본을 종합하여 비교의 관점에서 본문 전체의 편성 및 체제를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표-2〕 한문본 삼략의 본문체제비교

연 번	판 본	간행 년도	구 분	권수제	중간제목	권말제	저자표시
①	乙亥字本 三略直解	1577년	上卷	三略直解 卷之上			前辛亥科進士 太原劉寅 解
			中卷	三略直解 卷中	中略	三略直解卷中終	
			下卷	三略直解 卷下	下略	黃石公三略直解終	
②	竹川書堂 版 三略直解	1600년	上卷	三略直解 卷之上			前辛亥科進士 太 原劉寅 解
			中卷	三略直解 卷中	中略	三略直解卷中	
			下卷	三略直解 卷下	下略	黃石公三略直解終	
③	濟州版 三略直解	1640년	上卷	三略直解 卷之上		三略直解卷上	前辛亥科進士 太 原劉寅 解
			中卷	三略直解 卷中	中略	三略直解卷中終	
			下卷	三略直解 卷下	下略	黃石公三略直解終	
④	丙午年私 板黃石公 三略直解	丙午年 (17세기 중반 추정)	上卷	黃石公三略直解 卷之上	黃石公直解 上略	三略直解卷上	前辛亥科進士 太 原劉寅 解
			中卷	三略直解 卷中		三略直解卷之中終	
			下卷	三略直解 卷下		黃石公三略直解終	
⑤	戊申字本 新刊增註 三略直解	17c 후반, 18c 초반 추정	上卷		上略	新刊增註三略直解 卷上終	
			中卷	新刊增註三略直解卷中	中略	新刊增註三略直解 中終	
			下卷	新刊增註三略直解卷下	下略	新刊增註三略直解下終	
⑥	甲寅字系 鐫刻版 新刊增註 三略直解	17c 추정	上卷	新刊增註三略直解 卷上	上略	新刊增註三略直解卷上終	前辛亥科進士 太 原劉寅 解
			中卷	新刊增註三略直解 卷中	中略	新刊增註三略直解卷中終	
			下卷	新刊增註三略直解 卷下	下略		

연 번	판 본	간 행 년 도	구 분	권 수 제	중 간 제 목	권 말 제	저 자 표 시
⑦	黃石公三 略直解	17c 말경	上卷	黃石公三略直解 卷之上	黃石公直 解上略	三略直解卷上	前辛亥科進士 太 原劉寅 解
			中卷	三略直解 卷中	中略	三略直解 卷中終	
			下卷	三略直解 卷下	下略	黃石公三略直解 終	
⑧	箕營版 新刊增註 三略直解	1750 년	上卷	新刊增註三略直解 上	上略	新刊增註三略直解卷上終	前辛亥科進士 太 原劉寅 解
			中卷	新刊增註三略直解 中	中略	新刊增註三略直解卷中終	
			下卷	新刊增註三略直解 下	下略	新刊增註三略直解下終	
⑨	禿用山城 版 新刊增註 三略直解	1738 년 추정	上卷	新刊增註三略直解卷上	上略	新刊增註三略直解卷上終	前辛亥科進士 太 原劉寅 解
			中卷	新刊增註三略直解卷中	中略	新刊增註三略直解卷中終	
			下卷	新刊增註三略直解卷下	下略	新刊增註三略直解卷下終	
⑩	完山版 新刊增註 三略直解	1777	上卷	新刊增註三略直解 卷之上	上略		前辛亥科進士 太 原劉寅 解
			中卷		中略		
			下卷		下略	三略上中下終	
⑪	新刊增註 三略直解	19c 초반	上卷	新刊增註三略直解 卷上	上略	新刊增註三略直解卷上終	前辛亥科進士 太 原劉寅 解
			中卷	新刊增註三略直解 卷中	中略	新刊增註三略直解卷中終	
			下卷	新刊增註三略直解 卷下	下略	新刊增註三略直解卷下終	
⑫	新刊增註 三略直解	19c 후반	上卷	新刊增註三略直解 卷之目	上略	新刊增註三略直解 卷之終	前辛亥科進士 太 原劉寅 解
			中卷	新刊增註三略直解 卷之中	中略	新刊增註三略直解 卷之終	
			下卷	新刊增註三略直解卷下	下略	新刊增註三略直解 卷下終	
⑬	三略直解	19c 후반	上卷	三略直解 卷之上		三略直解卷上	前辛亥科進士 太 原劉寅 解
			中卷	三略直解 卷中	中略	三略直解卷中	
			下卷	三略直解 卷下	下略		

표에 나타나는 바와 같이 三略은 版本에 따라 그 서명이 여러 가지로 나타나며 같은 책 내에서 권차별로 표기가 약간씩 달라지는 점에서 다른 版本에서 볼 수 없는 특이점을 가지고 있다. 그 이유는 이미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저자문제와 후대 直解한 판본, 增註된 판본이 정확하게 표기되지 않은 채 유전되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3. 冊板目錄에 나타난 간행 기록

현전하는 삼략의 판본은 壬辰倭亂, 丙子胡亂을 거친 17세기 이후에 주로 간행되었으며 기존의 한문본과 언해본이 서울을 비롯한 각 지방에서 간행이 이루어졌다. 간행의 개략적인 시기와 지역은 책판목록의 기록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어서 이와 관련한 책판 목록의

기록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3〕 역대의 책판목록에 수록된 『三略』

서명	간행지	비고	수록책판명	기타
		紙 一卷 十張	攷事撮要(무신자본-1636년, 만송문고본, 연세대본, 일산본, 운각인서채자본)	
三 略	①南漢 開元寺	紙一牒五張	鏤板考(1796)	
	②濟州牧	印紙一牒七張	"	
	③關北觀察營	印紙一牒八張	"	
	④關西觀察營	印紙一牒十八張	"	
	⑤寧邊府	印紙一牒一張一片	"	
		容入紙一卷八張	各道冊板目錄(1759)	
	星州	白紙三卷	冊板置簿冊(1740)	
	"	白紙二束	嶺湖列邑所在冊板目錄(1760)	
	"		嶠南冊錄(1783)	
	全州	一束三張一卷	諸道冊板錄(1750)	
	"	紙一卷五張	各道冊板目錄	
	"	紙一束五張	完營客舍冊板目錄	
	"	白紙一束五張	冊板錄	
	"	紙一束五張	龍湖間錄	
	潭陽	白紙二卷	冊板置簿冊(1740)	
	"	白紙二束	完營冊板目錄	
	海南	白紙二卷十張	冊板置簿冊(1740)	
	"	白紙一束十張	嶺湖列邑所在冊板目錄	
	濟州		古冊板有處攷(1776)	
	平安監營	紙一束十張	各道冊板目錄(1840)	
三略直解	南漢 開元寺	印紙一卷五張	林園十六志(1796)	①과 동일
	濟州牧	印紙一卷七卷	林園十六志	②와 동일
	關北觀察營	印紙一卷八張	林園十六志	③과 동일
	關西觀察營	印紙一卷十八張	林園十六志	④와 동일
	寧邊府	印紙一卷一張	林園十六志	⑤와 동일
三略彙解	平安監營	紙二束十五張	各道冊板目錄(1840)	

이상과 같은 책판 목록의 기록에 따르면 『三略』에 대한 내용이 略書名으로 표기되거나 중복 수록된 것들도 포함되어 있으나 종합적으로 볼 때 全州, 海南 등 10개 지역에서 간행되었고 13종의 책판목록에 그 서명이 기재되었을 만큼 빈번한 간행이 이루어졌다.

『三略』을 수록한 책판 목록으로 임란이전의 목록에서는 나타나지 않으나 1636년의 활자본 『攷事撮要』에서 처음 수록되고 있다. 이들 책판 목록의 수록 서명은 '三略'이지만 실

제 확인되는 판본은 劉寅이 解한 한문본 『新刊增註三略直解』나 『新刊增補三略直解』이며 서명을 약기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지역별로는 책판목록에 수록된 가장 빠른 기록으로 보아 星州, 潭陽, 海南지역은 1740년 이전, 濟州牧과 關北觀察營, 關西觀察營, 寧邊府는 1796년 이전, 平安監營 1840년 이전 등 주로 18세기 이후에 간행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또한 『林園十六志』가 『鏤板考』의 草稿인 성격을 띤 것으로 볼 때 『林園十六志』에 나타난 서명 『三略直解』역시 『鏤板考』에 수록된 『三略』과 동일한 판본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 밖에 일본인 鮎貝房之進에 의해 도화자본으로 소개²⁷⁾되었던 현재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책은 간행처가 함경북도 북청군이며 언해본으로 1805년 경성 광통방에서 간행되었던 판본과 충청도 홍주 신평에서 간행된 판본이 더 있어 실제 삼략의 간행이 확인되는 곳은 13곳이다.

IV. 諺解本 및 筆寫本

1. 諺解本

武經七書 가운데 『三略』은 『吳子直解』, 『孫子兵法』과 더불어 가장 많이 읽혀졌던 것 중의 하나로 이미 18세기 이전에도 언해본이 유통되었으나 전존하는 것이 없으며 현존본으로 볼 때 18세기초부터 간행되어 19세기 초에 이르러서는 국가기관이 아닌 廣通坊에서 보급용 책이 만들어져 간행되어 유통되기에 이르러 18세기 이후 언해본의 간행과 유통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1) 新刊三略諺解 (1711년)

이 판본은 연세대학교에서 열린 국어사자료학회의 1999년 여름 학술회의에서 필자에 의하여 처음 소개된 것으로 대구의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자료이다.

이 책은 목판본 3권 1책으로 전체 50장으로 되어 있으며 장차는 권차를 달리하여도 일괄적으로 매겨져 있다.

표지서명은 ‘三略單’으로 묵서되어 있으며 권수제는 ‘新刊三略諺解’로 새겼으며 판심제는 ‘三略’이다. 보존상태도 온전하며 책의 크기는 25.8×19.0cm로 본문의 체제는 10행 19자를 배열하고 있다.

27) 鮎貝房之進(1941), <支那及朝鮮之古活字>, 『書物同好會報』冊子 第 10號 附錄.

형태면에서 판식은 四周單邊에 匡廓의 크기 19.6×15.8cm이며 界線은 있고 白口에 어미는 上下內向有紋魚尾로 되어 있다. 지질은 세로발 끈의 폭이 1.2-1.8cm 정도로 18세기의 일반적인 경향과 같다.

서문의 내용에 의하여 간행의 배경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삼략 언해를 읽는 자가 科擧의 講에서 많이 떨어지므로 과거에 임하여 언해를 버리고 내게 와서 묻는 자들이 많아서 옛날의 번역을 구하여보니 과연 잘못된 곳이 많았다. 대개 삼략은 유가의 글과 달라서 잘못되기 쉽고 알기 어려우며 앞뒤의 풀이한 것이 하나가 아니고 또 풀이하기를 유가의 책과 같이 하였으니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 언해를 처음 이루고 그 의심나는 곳은 양쪽을 그대로 두고 병서를 안다고 알려진 사람들에게 바르게 고쳐주기를 청하였더니 모두 다 좋다고 하므로 이에 판에 새겨서 읽는 자로 하여금 신구의 풀이에 의심하지 않게 하며 또 강에 응하느라 편리하도록 하였다.

내가 무경에 유의하다가 매번 문과에 응시하는 사람들이 와서 옛날의 풀이를 찾거늘 옛날의 언해를 찾아서 원래의 주를 참고하여 다른 병서를 증거로 하여 하나하나 빼내고 고치고 하여 만약 병서를 아는 사람을 만나면 문득 더불어 논의하기를 수십년하여 비로서 이 언해를 보게 되었다²⁸⁾

언해를 한 이상징은 李世應의 아버지로 英祖 5年(1729)의 식년시 진사 2등으로 입격하였으며 陽智에 거주하였던 인물로 벼슬의 품계는 通訓大夫, 西部 行主簿를 지냈다

또한 권말에 나타난 간기사 향이 ‘通訓大夫 前行掌苑署 別提 李商微 解 / 忠淸道 洪州 新坪 開刊’과 같아서 이상징이 언해한 것을 충청도 홍주 신평에서 간행하였음을 알 수 있다. 간행의 시기는 이상징이 西部主簿 등으로 주로 활동²⁹⁾하던 1711년에 간행되었던 것이다.

이 책은 증주가 없는 판본을 대상으로 언해한 것으로 무신자 간행본 이전 것이며 현재까지 밝혀진 언해본 가운데 그 시기가 가장 빠를 뿐만 아니라 18세기 초 한글표기 특징과 음운변화를 잘 보여주고 있다.

두드러진 표기상의 특징으로는 우선 병서 표기를 들 수 있다. 병서 표기는 각자 병서와 합용 병서가 모두 나타나고 있는데 각자 병서는 ‘ㄸ’, ‘ㅈ’, ‘ㅊ’계가 나타나고, 합용 병서에는 ‘ㅉ’, ‘ㅊ’, ‘ㅌ’, ‘ㄷ’계가 나타난다.

중철 표기로는 ‘굿툼니(4ㄴ), 훗터디고(17ㄱ), 혼나홀(17ㄴ), 낫타나느니라(49-)’ 등이 나타나며 오각과 탈획된 표기로는 ‘자롤[ㄹ/ㄹ](05ㄱ), 향오롤[ㄹ/ㄹ](13ㄴ), 이[어]덜면(14ㄴ), 애[아]래(19ㄴ), [업]느니라(44ㄱ), 띄[외]호느(40ㄱ)’ 등이 있다.

또한 부사격조사 ‘-(아/어)서’와 ‘-(으)로써’의 다양한 표기 형태를 들 수 있다. 이는 곧

28) 新刊三略諺解序 / 三略 舊有諺解 讀者多屈於科講 臨科棄解 來問 / 於余者 衆 得見舊解果多誤處 蓋三略 異於儒家 / 書易誤 難曉前後 諺以解者 非一 一而解之 如儒家書 / 其誤固也 余留意武經科時 惱於應舉者 來質搜取 / 舊解 參考先註 證他兵書 一一刪改 若遇曉兵者 輒 / 與論 卞經營數十年 / 始就是解俗所致疑處 兩存其 / 說 仍又就正於世 號知兵者 咸曰 可略記厥 由仍刊 / 于板 使讀者 無疑於 新舊解 且便於應講云爾 / 歲在 辛卯 完山後人 李商微序

29) 『肅宗實錄』肅宗 30年 6月 6日 甲戌

부사격조사 ‘-(아/어)서’와 ‘-(으)로써’의 표기 형태가 ‘-아(어)써, -야사/-야써, -(으)로써 /-(으)로써/-(으)로써, 의써, -ㅣ 써, -샤써, -고써’ 등의 다양한 이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이 밖에도 음운 현상으로 구개음화 된 ‘처티(a46ㄱ)’와 자음동화 된 ‘존논(2ㄴ)’, ‘인논(7ㄱ)’ 등이 자주 보이며 원문의 한자를 이해할 때 어휘를 풀이하지 않고 한자를 그대로 사용한 예가 嶺營版보다 훨씬 많이 나타난다.

뿐만 아니라 ‘갈흠’ 등의 명사형 어미가 다수 등장하며 ‘밋비(12ㄱ)’, ‘밋비(15ㄴ)’, ‘교식헛면(15ㄴ)’, ‘우케헛면(15ㄴ)’, ‘해분북헛고(17ㄴ)’, ‘밋기(19ㄴ)’, ‘숫두어려들(24ㄱ)’ 등의 어휘 또한 자주 사용되고 있으나 이 가운데 ‘해분북헛고(17ㄴ)’는 <이조어 사전> 등의 고어 사전류에 등재되어 있지 않다.

2) 新刊增補三略直解 (1805년)

(1) 형태

이 책은 무신자본 이후의 증주본을 대상으로 이해한 것이며 3권 1책으로 상권 37장, 중권 11장, 하권 18장의 전체 66장으로 된 목판본이다. 본문의 자열은 11행 21자를 기본으로 소자를 쌍행으로 배열하고 있다. 권수제는 ‘新刊增補三略直解’이며 판식사항은 四周單邊에 匡廓의 크기는 19.6×15.2cm, 上下白口에 版心題는 ‘三略’으로 새겼으며 어미는 上下向四瓣花紋黑魚尾로 나타난다.

권말의 간기면 제 8행에는 ‘上略 66章 2107字, 中略 21章 654字, 下略 34章 1409字’라고 하여 책의 전체 章數와 字數를 밝히고 있다.

장차는 권차별로 따로 매겼으며 본문의 변란 상단 여백에는 頭註를 달아서 본문의 내용을 설명하거나 음가표시를 하기도 하였다.

본문의 체제는 권수에 劉寅의 原序가 있고 뒤를 이어 <閱史釋義>와 증보의 범례가 있다. 본문의 시작은 한문 원문에 한글로 된 토를 달았으며 이해문은 쌍행으로 배열되어 있다.

권말에는 근래에 전하는 삼략은 착오가 많기 때문에 거듭 교정하고 註와 頭註를 추가하였으며 增刪하여 새긴 즉 보는 이로 하여금 유익하도록 하기 위하여³⁰⁾ 이 책을 편찬하였음을 밝히고 있다.

또 권말의 기록에서 책의 전래와 對校部分을 언급하면서

... ‘箕營本の <上略> 가운데 端末章의 ‘圖制’ 위에는 ‘能’자가 없으며 能淸章의 ‘能淸’ 위에는 ‘將’자가 있다. 綱目的 唐岑文 본소에 나타난 황석공이 말하였던 ‘貪者急趨其利 / 愚者不計其死’의 문장과 중략의 본문(제3장 제10행)과는 다르다

30) ‘...近有此本之梓行者而還多 / 錯誤故重加校正添註及頭 / 註亦坡增刪而隨書隨刊不 / 無未及照儉覽者幸諒焉’

明의 詹景鳳이 <明辨類函>에서 이르기를 지금의 三略은 반드시 圯上老人이 주어서 (張)子房이 쓴 것이 아니다. 그 말이 깊고 심원하여 옛날에 쓰여진 것과 같으며 ...³¹⁾

라고 한 기록에서 기영본과의 차이점을 설명하고 이어서 중국에서의 三略 版本들의 異同과 전래과정을 언급하였다. 더불어 추가된 설명에서 이러한 전래에 관련된 언급 내용 중에는 의미가 분명하지 못한 문장이 있어서 三略과 素書의 두 가지 책이 서로 혼합되어 설명된 까닭에 괴이하다는 글이 첨부되어 있다.

권말에는 ‘上之五年乙丑仲夏 京城廣通坊 重刊’의 간행기록이 나타나 純祖 5年(1805) 5월에 重刊되었음을 알 수 있으나 重刊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그 原刊本이 있어야 하지만 현재까지는 보이지 않는다. 다만 한문본을 언해의 底本으로 삼고 대조와 추가를 하였으므로 이에 상응하는 의미에서 重刊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동일한 간기를 가진 판본이 현재 檀國大學校³²⁾와 韓國精神文化研究院, 山氣文庫³³⁾ 등에 소장되어 있다.

(2) 범례

이 책의 범례 부분에는 책의 간행에 관련된 배경 사항들이 많이 수록되어 있어서 판본간의 선후문제나 중요한 차이점들을 정리하여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즉, 유인의 서문에 이어지는 범례의 항을 살펴보면,

첫째, 全州板과 活字本 및 현재 유통되고 있는 판들은 함께 참고하여 본 즉 章 아래의 註와 小註가 그릇된 곳이 많기 때문에 舊本에 의거하여 교정하였다.

둘째, 上略의 軍讖의 能清章[上卷의 제23장 제9행 : 軍讖에 有曰將은 要能清이니 清則不可于以私...]에는 원래 ‘將’자가 없었으므로 舊本에 의거하여 교정하였다.

셋째, ‘危者安之’에서 ‘順舉挫之’을 講譜할 때에는 이어진 문장으로 하며 과거시험의 講이라면 끊어서 읽도록 하였다.

넷째, 언해가 있다 하더라도 그 수가 적고 文義 또한 제대로 밝혀지지 않은 곳이 많기 때문에 다시금 참고하고 증빙하여 각 장의 아래에 언해를 추가하고 註와 大文에는 諺吐를 달았으며 小註나 頭註를 달아 문장 사이에 보완하였다.

31) 箕營本上略端末章圖制上無能字能清章能清上有將字綱目唐岑 / 文本疏黃石公曰云云貪者急趨其利愚者不計其死與中略本文異 / 明詹景鳳明辨類[函]云今三略固未必即爲圯上老人授子房書然其言 / 沈澗廣遠似上世書大歸祖述老氏斂藏退守不爲物先之意而用之真 / 西山氏固信之以爲子房所得之至在上略數語若然其真爲黃石公書 / 耶則漢唐藝文志何以不載三略書目唯梁庾仲容子鈔始載而予最善 / 安莫安於忍辱古莫吉於知足短莫短於苟得孤莫孤於自恃潔莫潔於 / 謹獨苦莫苦於多願病莫病於無常危莫危於任疑數語雖聖起弗易也 / 按此混三略素書而言可怪矣

32) 檀國大學校 栗谷紀念圖書館(1994), 『漢籍目錄』, p.51.

33) 國學資料保存會(1974), 『山氣文庫目錄』, p.151.

라고 하여 책을 새롭게 간행함에 있어서 완산판, 무신자판, 그밖에 통용되는 私版 등을 비교하여 잘못된 부분은 고치고 보완하였으며 또 특징적으로 변란의 위 여백에 한문으로 주석을 달아놓기도 하였고 끝에는 협음이 달려있다. 책의 본문 상단 여백에 새겨진 기록으로 볼 때 箕營板 즉 平壤에서 간행된 판, 全州板, 俗本이라는 통용본을 주로 대조하고 있으나 범례에 보이는 鑄字版 즉 戊申字本과의 차이나 비교는 수록되어 있지 않다.

(3) 표기 및 판본 교감

표기상의 특징은 한글에 있어서 중철과 분철의 표기가 두드러지며 ㅂ계와 ㅅ계 합용병서를 모두 쓰고 있으나 ㅅ계가 우세하게 나타난다.

한편 내용에 있어서 서로 달라진 부분에 대하여 다른 판본과의 차이에 대한 설명하고 있으며 이 연구에서 하나하나 교감한 결과 본문은 기존의 다른 판본들과 표기법이나 내용 및 小註에 있어서 많은 차이를 보이며 또한 頭註에는 다른 판본들과의 차이점을 기록하고 있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 표와 같다.

[표 4-1] 頭註에 나타난 판본설명

구분	張次	내용
增補凡例	제3장 뒷면 상단	完山本淸章本亦無將字章下註則有將字與此本同
上略	제4장 뒷면 상단	玄夷俗本作元夷誤
	제23장 앞면 상단	箕營本曰下有將字
	제26장 앞면 상단	..內爲究俗本誤竹究
中略	제6장 앞면 상단	盛强完山本作强盛
	제11장 뒷면 상단	勢主之勢俗本作世誤

위 표에서 책의 앞부분에 언급하였던 完山本, 俗本, 箕營本과의 비교부분이 나타나 있다.

[표 4-2] 내용비교(본문의 내용은 1813年本과 대조)

구분	위치	1813년본(A)	1805년본(B)
增補凡例	제3장 뒷면 제2행	全州板 鑄字板 時俗行用板 皆閱考則..	全州本 活字本 時俗行用本 竝參考則...
	제3장 뒷면 제7-9행	三略本無諺解而諺解間或有之文意往往有不夾處故集聚武學精舍諺解及頭註或加於章下..	諺解或有而絕少文義亦多未暢處故加參證增附諺解於各章下諺吐於大文及註而間補小註..

上略	제2장 뒷면 제9행	..皆欠剛柔能制四字	..皆欠剛弱能制四字
	제4장 앞면 제6행	日神日之所睹無所不見曰明難測者莫過於神在天者莫明於日月	日神天地與道爲體者也其妙用且神天靈曰神地靈曰祇明神靈也
	제9장 앞면 제3-4행	漢高之於韓信損千里之地秦王之於王翦請田宅於伐楚之後此皆才足性貪之類也	韓信定齊地請爲假王漢王從張良計立信爲齊王期貪擊楚不至從陳東傳海與信類
	제13장 앞면 제10행	土之所生秋以供上曰賦春以微下曰歛徭使也戶役曰徭身役曰役司	土地所生以供上曰賦又上以正取不謂之賦歛收也徭役也役使也司
	제18장 앞면 제10행	..自歸之也 -니라 畜音育	..自歸之也 -니라
	제18장 뒷면 제5-6행	..馬稷舍水上山不下據城泣斬馬稷秦孝公之募民不廢徒木此皆賞罰必信者也擊破曰號用旗曰令	..馬謖違其節度大敗街亭下獄殺之此皆賞罰必信者也
	제25장 앞면 제3-4행	項羽使人有功當封刻印 羽不認不能予功臣皆倦怠而終爲人所擒矣	項羽使人有功當封刻印 羽不認不能予功臣皆倦怠而終爲人所滅矣
	제26장 뒷면 제1행	..其不用廣武君策是也	..其不用廣武君策之類也
	제28장 뒷면 제7행	..銳於始而怠其終也詩云靡不有初鮮克有終其斯之謂歟	없음
	제31장 뒷면 제1행	傷仁曰殘害義曰賊	賊義曰殘賊仁曰賊
	제33장 앞면 제1행	委亦曲也漢張湯所謂舞文之法	委亦曲也持法 漢刻謂之文漢張湯與趙禹共定諸律務在 漢文舞文以御人故玩法之吏曰舞文以文法致人於罪曰文致
	제35장 앞면 제6행	巧諂捷給曰佞	面從曰諛巧諂捷給曰寧
	제36장 뒷면 제9행	石窟曰巖舜遊巖廊土室曰穴呂望所以投綸而遊也	石窟曰巖土室曰穴
	제37장 앞면 제1행	流行克浦之意	없음
中略	제37장 앞면 제1행	없음	九夷八狄七戎六蠻謂之四海環九州之四方皆海故曰四海凡四海通謂之裨海
	A:제2장 앞면 제7-8행 B:제1장 뒷면 제8-9행	書曰大禹謨舜命禹六府三事允治萬世永賴是乃功	虞書大禹謨帝曰兪地平天成六府三事允治萬世永賴時乃功
	A:제2장 뒷면 제1행 B:제2장 앞면 제2행	三皇之書謂之典五帝之書謂之籍	典五帝之書籍書籍也
	A:제3장 앞면 제4-5행 B:제2장 뒷면 제4행	天池以納百川曰海九夷八狄七戎六蠻謂之四海海者晦也取其荒遠冥昧之稱東曰滄海西曰瀚海南曰溟海北曰渤海又四海通謂之裨海	없음
	A:제4장 뒷면 제6행 B:제4장 앞면 제7행	莫然無知也	없음
	A:제6장 앞면 제6행 B:제5장 뒷면 제5행	稱錘也所以稱物之輕重而得其平者也權是稱權柄是斧柄處事之變也居人上者所執不可下移也	權柄也權是稱權柄是斧柄居人上者所執不可下移也
	A:제7장 앞면 제3-4행 B:제6장 뒷면 제2행	御臨御也度音鐸王澤王者之德澤也聖王之德澤如澤水之盈浦故又化澤竭盡也	없음
	A:제11장 앞면 제1행 B:제10장 앞면 제10행	按此疑是大夫種之言	없음

下略	A:제1장 뒷면 제9-10행 B:제1장 앞면 제10행	敬篇云以正理從順者福也以非理逆行者禍也	없음
	A:제3장 뒷면 제 1행 B:제3장 앞면 제 1행	...漢武之大武是也	...漢武王樂大武是也節者制度之名節止之義
	A:제6장 뒷면 제 3행 B:제6장 앞면 제 4행	天理之節文人事之儀則	없음
	A:제7장 앞면 제 4행 B:제6장 뒷면 제 6행	없음	天理之節文人事之儀則
	A:제9장 앞면 제 9행 B:제8장 뒷면 제 10행	惑迷惑也不知所從疑二疑也不相信也	疑貳疑不相信也惑迷惑不知所從也
	A:제9장 뒷면 제 9행 B:제9장 뒷면 7행	曉明也紀維也大曰綱小曰紀	審悉也詳也熟究也
	A:제12장 앞면 제 1행 B:제12장 앞면 제 1행	漢光武時五星聚奎嘉禾一莖有九穗之兆是也	없음
	A:제13장 앞면 제 1(행) B:제12장 뒷면 제 1(행)	賣也不聞於人也	없음
	A:제16장 앞면 제 3행 B:제15장 뒷면 2-3행	없음	足以爲儀表智足以波嫌疑信可以守約廉可以使分財此人之豪也守職而不廢處義而不回見嫌而不苟免見利而不苟得此人之傑也
	A:제16장 앞면 제 5행 B:제15장 뒷면 제 5행	猶言歷世也斃音 敝死也懷仁抱義 稷其斃之意	猶言歷世也斃音敝死也
	A:제17장 앞면 제 7행 B:제16장 뒷면 제 8행	如燕王 噲屬國於子之子之南面行王事而噲反爲子之之臣是也	없음
	A:제18장 뒷면 제 3-4행 B:제18장 앞면 제 1-2행	十里之城七里之郭城與盛同所以盛民之器也	城以盛民鮮始造一日黃帝始築城邑天子城千雉高七雉公侯百雉高五雉子男五十雉高三雉方丈曰堵三堵曰雉一雉之牆長三丈高一丈

3) 嶺營版 新刊增補三略 (1813年)

(1) 형태

이 책은 권말의 木記에 ‘癸酉新刊嶺營藏板’이라 하여 1813년에 嶺營에서 간행되었음을 알 수 있고 책의 크기는 33.7×22.0cm이다. 3권 1책의 목판본으로 본문은 서문 3장과 권말의 간기면을 포함하여 모두 69장으로 되어 있으며 각권마다 ‘新刊增補三略’의 권수제가 있다.

하권의 권말에는 ‘新刊增補三略 卷之下終’과 다음의 간기면에 다시 ‘新刊增補三略上中下終’이라고 중복해서 적고 있다

형태면에서 본문의 글자는 11행 21자를 기본으로 하고 小字雙行으로 배열되어 있다. 판식은 四周單邊에 匡廓의 크기는 25.6×16.7cm에 界線이 있고 版心題와 上下向花紋黑魚尾의 형태이다.

동일한 권말의 간기가 나타나는 판본이 嶺南大學校 圖書館, 啓明大學校³⁴⁾와 延世大學校³⁵⁾에도 소장되어 있다.

(2) 간행 사항

이 연구의 조사 대상본은 영남대학교 도서관에 소장된 자료이며 권말의 木記의 記錄인 癸酉年에 의거하여 선행의 국어학 분야 연구들에서는 책의 간행시기를 1873년으로 추정하고 있으나 영남대학교의 같은 문고에 이 자료와 함께 소장되고 상호간에 지질이나 형태면에서 거의 유사한 『兵學指南』은 일반적으로 1813년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 책에서도 권말의 木記에 ‘癸酉新刊嶺營藏板’으로 갖고 다만 正祖11年(1787)에 쓰여진 御製序文이 있으므로 먼저 중앙의 壯勇營에서 간행된 이후 지방에서 이를 底本으로 번각한 책으로 판단되므로 이 三略諺解도 시기적으로 그리 멀지 않은 癸酉 즉 1813년경에 간행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그러나 嶺營刊行本과 書誌에 대한 선행 연구 등에서는 이 판본에 대하여 전혀 언급이 없다.

한편 시기적으로 볼 때 이 版本보다 8년 앞서 京城의 廣通坊에서 간행된 책이 유통되고 있었지만 책의 전반에 나타난 한문의 주와 언해의 표기로 볼 때 嶺南監營에서 이 자료를 언해할 때까지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못하였거나 미처 자료의 유포가 늦어진 까닭에 내용을 보지 못하고 별도의 판하본을 만들고 간행하였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된다.

4) 新刊增補三略 (19세기 중엽)

이 책은 본문의 훼손이 심하여 다시 배접되었으며 표지도 후대에 改裝된 것으로 표지 서명은 ‘三略 天地人’이라고 묵서되어 있다. 목판본 3권 1책으로 권수의 주해자 서문 3장을 포함하여 본문은 모두 68장이며 각권마다 장차를 달리하고 있다.

본문이나 권말에 나타난 간기는 없으며 다만 배접지에 ‘歲在壬子十月二十三日改造蒐輯 / 申鍾紹 / 凡百十九章’이라고 墨記되어 있다.

형태면에 있어서 책의 전체크기는 27.6×20.3cm이며 본문은 11행 21자를 기본으로 소자를 쌍행으로 배열하고 있다. 版式은 四周單邊에 半匡의 크기는 23.0×16.9cm이며 版心에 黑口는 보이지 않는다. ‘三略’이라는 관심제와 더불어 上下內向六瓣花紋黑魚尾이다.

이 판본은 1813년 嶺營에서 開板된 판을 翻刻한 것이다. 번각시 관심의 아래 魚尾를 추가하여 嶺營版에서는 없었던 六瓣花紋魚尾를 추가하여 변용시켰다.

간행시기는 판의 상태나 지질로 보아 19세기 중엽이후로 여겨지며 대체적인 체제는 1805년 광통방 간행을 번각, 후쇄한 것으로 추정된다. 경북대학교 도서관 등 여러 곳에 소장되어 있다.

2. 筆寫本

현재까지 알려진 다수의 필사본류가 있지만 대부분 판본을 그대로 전사시키는 데 그칠

34) 啓明大學校 中央圖書館(1987), 『古書目錄』, p.163.

35) 延世大學校 中央圖書館(1987), 『古書目錄』, p.122.

뿐 새로운 체제로 만들어지거나 다시 언해나 내용의 첨삭이 시도되는 그러한 사본은 보이지 않으므로 그 예로서 두가지 만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1) 新刊增註三略直解

이 책은 필사본 3권 1책으로 계선과 어미 등 판식이 갖춰진 판에 본문의 내용 및 권차, 장차는 필사되어 있다.

책의 크기는 28.1×19.6cm이며 전체 장수 45장에 표지에는 ‘增註三略全’이라고 묵서되어 있고 권수제는 ‘新刊增註三略直解’이며 판심제는 ‘三略’이다

본문의 상단 여백에는 구결이 부분적으로 쓰여 있으며 다른 판본과 마찬가지로 삼략의 대문을 한 칸 올려져 쓰고 직해문은 한 칸 낮추어 썼다. 권말에 나타난 서사 기록으로 ‘天皇氏即位四万九千八百七十一年 / 孔子誕降二千四百六十六年 / 大韓開國五百二十四年旆蒙單闕 / 孟夏初吉日羅山永慕齋寓 / 隱樵生韓圭珣贈于 / 愚石崔泳琦’라고 하여 1915년 한글필이 최영기에게 배껴서 주었던 것임을 알 수 있다.

2) 新刊增註三略直解

이 책은 필사본 3권 1책으로 표지 서명은 ‘三略三卷兼’이며 권수제는 ‘新刊增註三略直解’로 적고 있다. 장차는 일괄로 매겨져 있으며 본문은 전체 45장으로 각권의 시작은 ‘中略, ‘下略’이라고 하였을 뿐 별도의 서명을 기입하지 않았고 다만 권말제로 ‘三略 上中下終’이라고만 표기하였다. 책의 크기는 28.0×19.8cm이며 권말의 서사기록으로 ‘天皇氏即位四万九千八百七十一年 / 孔子誕降二千四百六十六年 / 大韓開國五百二十四年旆蒙單闕 / 丁巳暮春念二日筆停于新安 / 蔚山郡江東面’이라 하여 정확한 필사자는 알 수 없으나 앞의 1913년본과 마찬가지로 간행된 판본을 보고 이를 저본으로 1917년 울산군의 강동면에서 쓰여진 것임을 알 수 있다.

그 밖에 여러 형태의 필사본이 산재하고 있으나 내용상으로는 漢文本 直解와 增註本이 주를 이루고 있으므로 일일이 분석하는 것은 큰 의미를 가지지 못하므로 여기서는 생략하였다.

V. 맺음말

이상과 같은 자료 분석을 통하여 이른바 三略이라고 불리는 유형의 兵書類 자료들을 형태적, 시대적, 언어적으로 나누어 체계화시켜 보았으며 역사적인 측면에서도 중국으로 부터의 전래시기 및 그 영향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다루어 본 결과 다음과 같은 몇가지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첫째, 三略의 兵書類의 하나로 고대로부터 간행이 종종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현재 전하고 있는 책들 중 1577년에 내사된 乙亥字本 『三略直解』가 가장 이른 판본이다. 또 일부에서 黃石公三略, 三略直解 등 그 서명이 다양하게 불리고 특히 『黃石公素書』와 혼동되어 사용되고 있지만 두 책은 서로 구별이 되는 다른 내용이다.

둘째,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거친 17세기에 들어서면 官版이 아닌 私版과 중앙 간행의 판본에 의거한 번각본들이 나타나며 늦어도 18세기 초까지는 註가 추가된 增註本들이 나타나 戊申字의 活字로 찍어내는 등 이후의 여러 판본들은 이를 번각하거나 중간하는 형태로 계통을 이루게 되었다.

셋째, 1711년에 直解本에 의거하여 李商徵이 언해한 판본은 이 연구에서 처음 소개하는 책이며 충청도 洪州의 新坪에서 목판으로 간행한 것이다. 이 책에 의하여 그 이전에도 몇가지 언해본이 있었으며 무과의 과거시험을 위하여 기본서로 이용하였다는 사실도 알수 있었다.

그 밖에 1805년 京城 廣通坊 간행의 諺解本은 箕營版, 完板, 鑄字版 즉 戊申字本, 通行版 등을 비교하여 언해한 것이며 본문의 細註는 물론 大文의 일부까지 다른 판본과는 차이를 보이고 있으므로 엄밀한 교정을 거쳐 편찬, 간행된 것으로 여겨진다.

넷째, 嶺營에서 간행된 언해본은 이 연구에 의하여 그 간행시기를 1813년으로 比定하고 廣通坊本과는 연계되지 않은 독자적인 판본으로 언해에 있어서도 과도표기 등 다른 점이 많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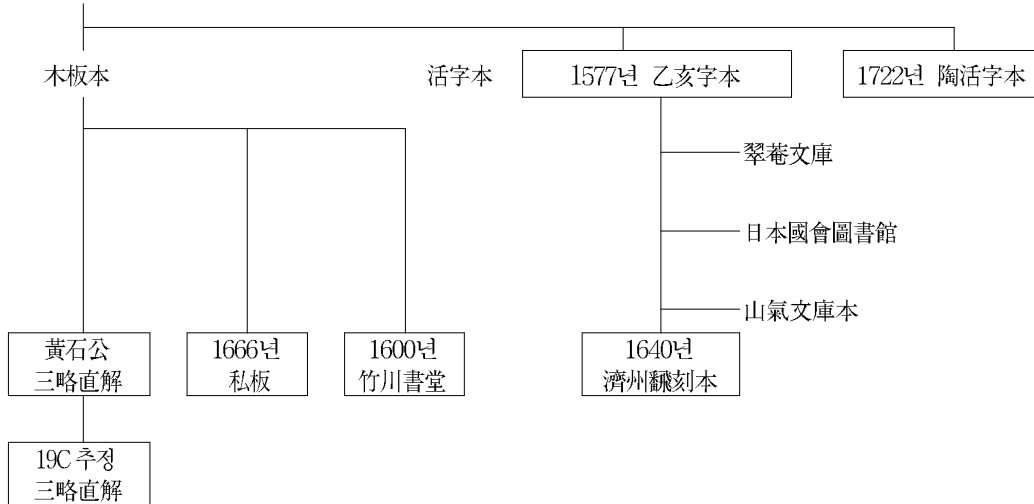
다섯째, 19세기 이후의 판본들은 한문본일 경우 대개 增註本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나, 1805년과 1813년의 언해본들에서는 서명 중에 같이 增補라는 용어를 같이 쓰고 있다. 그러나 두 판본은 서로 大文의 일부와 註의 여러 부분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고 또 增註와 분명한 戊申字本에 나타나지 않는 細註도 많으므로 단순히 같은 대상본에 의하여 언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즉 서로 다른 版本에 의하여 언해되고 1805년본은 당시에 유통되던 여러 판을 대상으로 한문의 원문을 대조하여 첨삭을 한 후 언해한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이와 같은 여러 판본의 성립에 있어서 후기에 크게 구분되는 增註와 增補의 부분에 대하여 中國이나 韓國의 문헌들에서 관련 사실을 전혀 찾아볼 수 없지만, 註의 내용과 간행시기 등으로 짐작하면 註는 中國에서 이루어져 국내에 유포되고 增補의 작업은 국내에서 18세기 말에서 19세기초에 이루어진 것으로 여겨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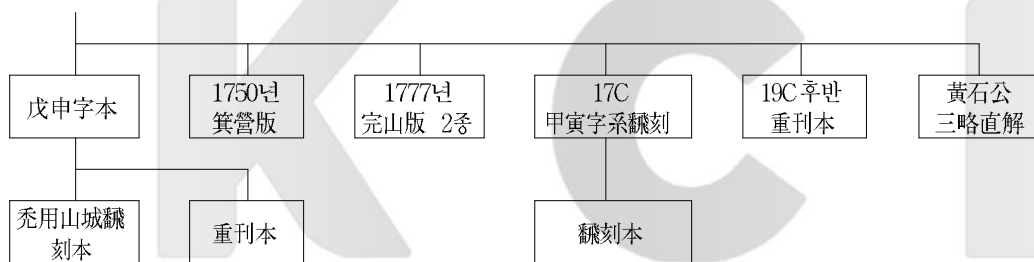
한국에서 간행된 武經七書 중 유일하게 언해가 되고 그 간행이 여러 차례 이루어진 三略은 임란후 增註本의 도입과 諺解本의 성립, 增補本을 거치는 동안 本文과 細註, 諺解 등이 변화하여 왔다. 이 연구에서는 판본간의 특징을 비교하고 형식과 본문 대조의 방법으로 판본의 계열화를 시도하였다. 그러나 전하는 실물이 없어서 직접 다루지 못한 갑인자 계열 등 보완자료가 더 출현하면 보다 망라적인 연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三略 版本 體系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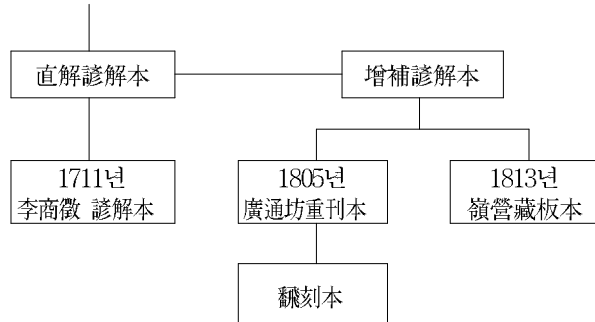
○ 三略直解



○ 增註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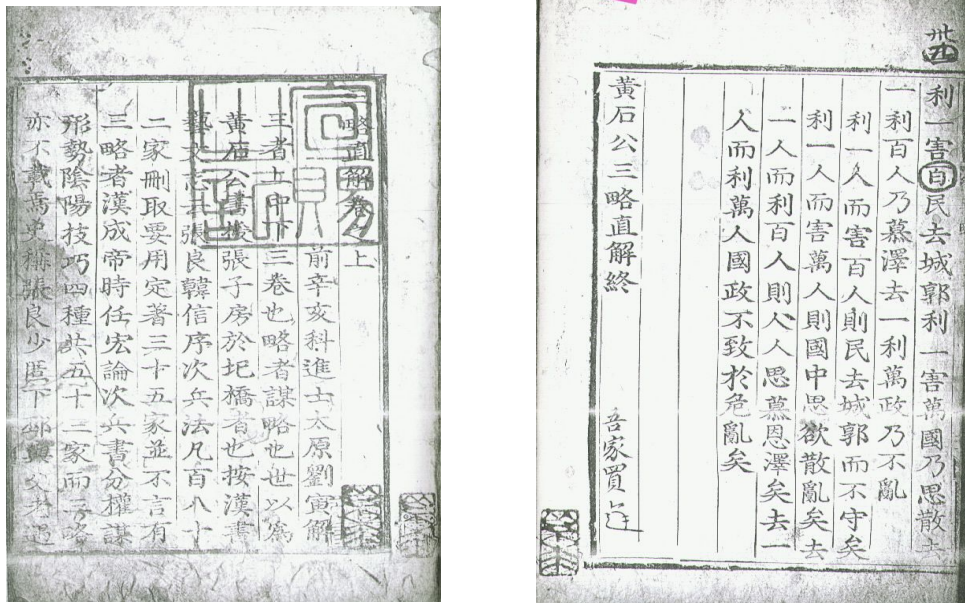


○ 諺解本



參考文獻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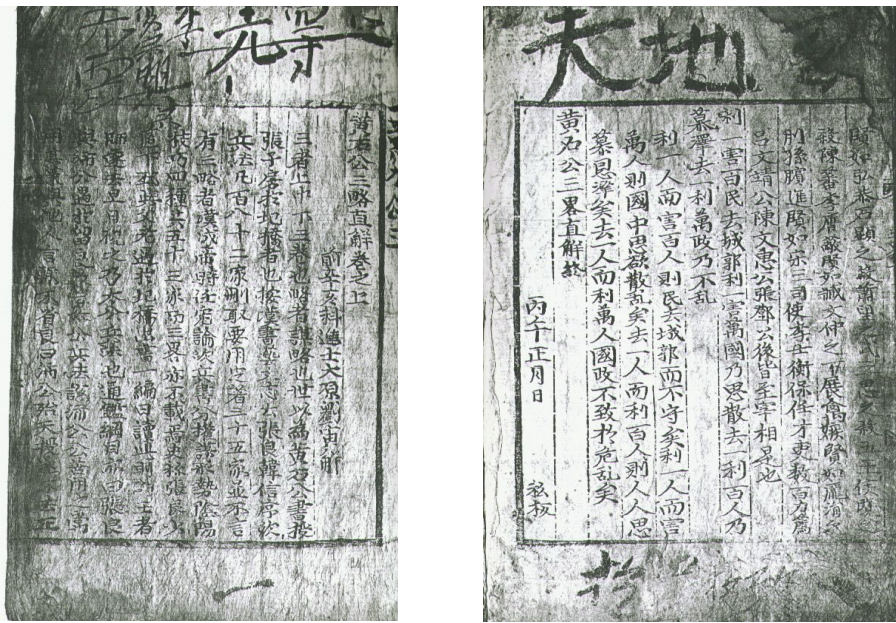
- 慶尙大學校圖書館. 『漢籍目錄』, 진주 : 同館, 1996.
- 啓明大學校 中央圖書館. 『古書目錄』, 대구 : 同館, 1987.
- 高麗大學校中央圖書館. 『漢籍目錄』, 서울 : 同館, 1984.
- 國學資料保存會. 『山氣文庫目錄』, 서울 : 同會, 1974.
- 國會圖書館. 『古書目錄』, 서울 : 同館, 1995.
- 金斗鍾. “近世朝鮮後期活字印本에 關한 綜合的考察”, 《大東文化研究》4집, 1984.
- 金斗鍾. 『韓國古印刷技術史』, 서울 : 探究堂, 1980.
- 盧永九. “壬辰倭亂 이후 戰法의 推移와 武藝書의 刊行”, 《한국문화》27집, 2001.
- 盧永九. “朝鮮時代 兵書의 分類와 간행주이”, 《역사와 현실》, 1998.
- 檀國大學校 栗谷紀念圖書館. 서울 : 同館, 1994.
- 劉申寧. “中國兵書總目”. 北京 : 國防大學出版部, 1988.
- 文化財管理局. 『韓國典籍綜合調查目錄(제4집-全羅北道)』, 서울 : 同局, 1990.
- 신양선. 『조선후기 서지사 연구』, 서울 : 혜안, 1996.
- 沈喁俊. 『日本訪書誌』, 성남 : 韓國精神文化研究院, 1988.
- 安光惠. <嶠南冊錄考>, 미간본석사학위논문, 서울 : 중앙대학교 대학원, 1986.
- 延世大學校中央圖書館. 『古書目錄』, 서울 : 同館, 1987.
- 龍仁大學校 傳統文化研究所. 『古書目錄』, 용인 : 同研究所, 2000.
- 柳詒徵. 『歷代兵書目錄』
- 陸軍本部. 『古兵書解題』, 1979.
- 李炳彥, 崔或臣. 『兵經釋評』, 北京 : 解放軍出版社, 1983.
- 李仁榮. 『清芬室書目』, 서울 : 寶蓮閣, 1968(影印).
- 千惠鳳. “陶活字本 『東溟先生集』의 발굴”, 《書誌學報》제 15호, 1995.
- 許保林. 『中國兵書知觀錄』, 北京 : 解放軍出版社, 1988.
- 許保林. 『中國兵書通覽』, 北京 : 解放軍出版社, 1990.



(圖-1) 乙亥字本 《三略直解》 卷首 및 卷末



(圖-2) 1600年刊 竹川書堂版 三略直解의 卷首 및 卷末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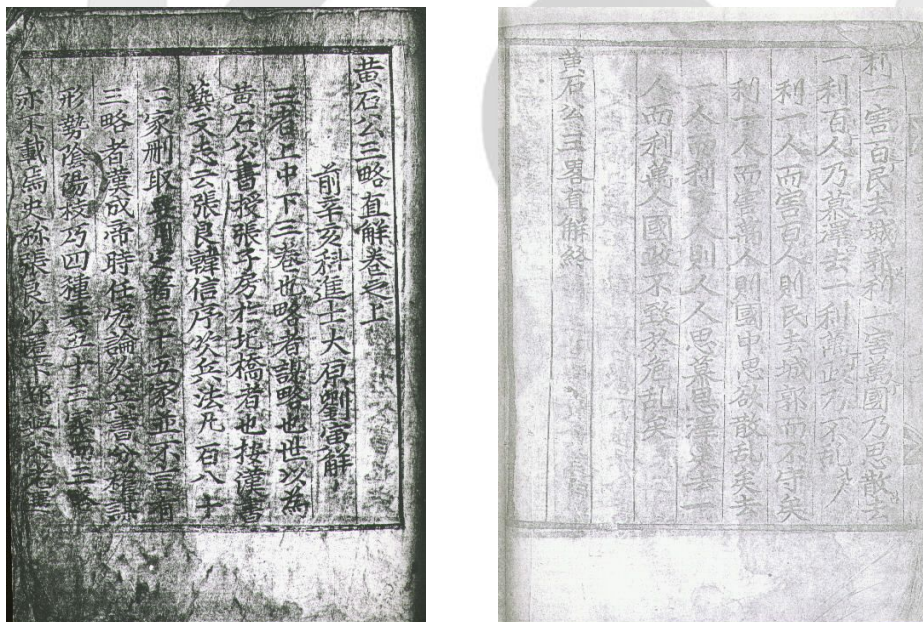
〔圖-3〕 丙午年 私板 黃石公三略直解의 卷首 및 卷末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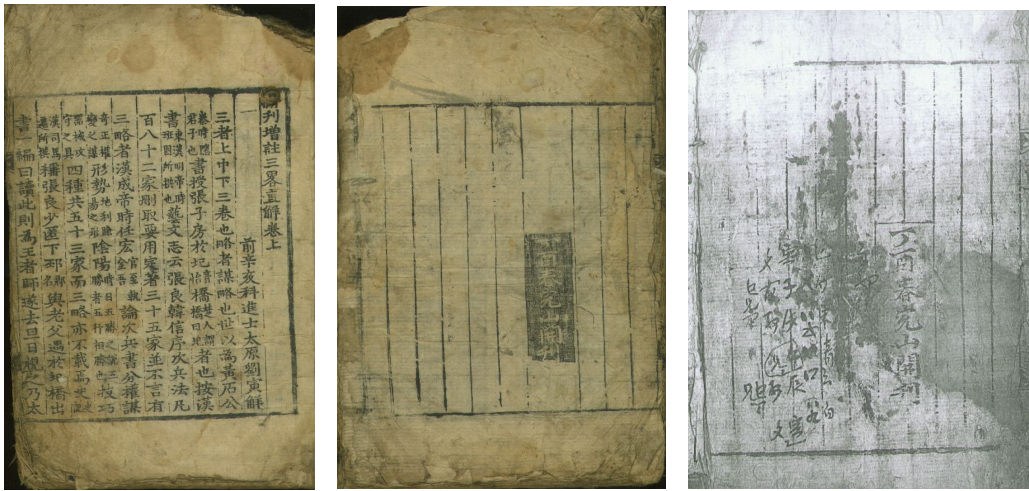
〔圖-4〕 戊申字本 《新刊增註三略直解》의 上卷의 卷末 및 下卷 卷末



(圖-5) 甲寅字系 翻刻版 《新刊增註三略直解》의 刊記面 및 卷末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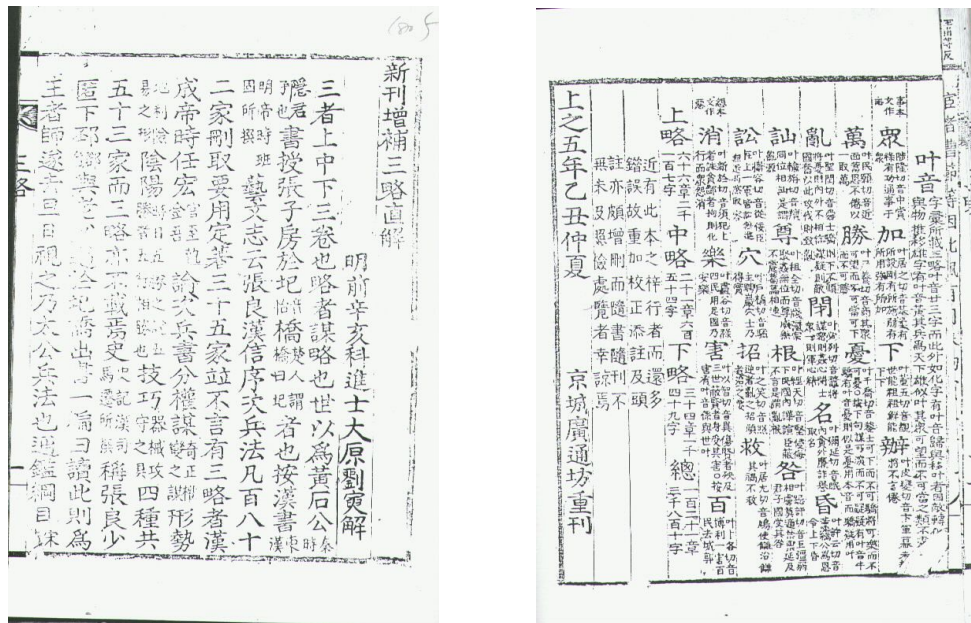
(圖-6) 17세기 말경 간행 추정 《黃石公三略直解》의 卷首 및 卷末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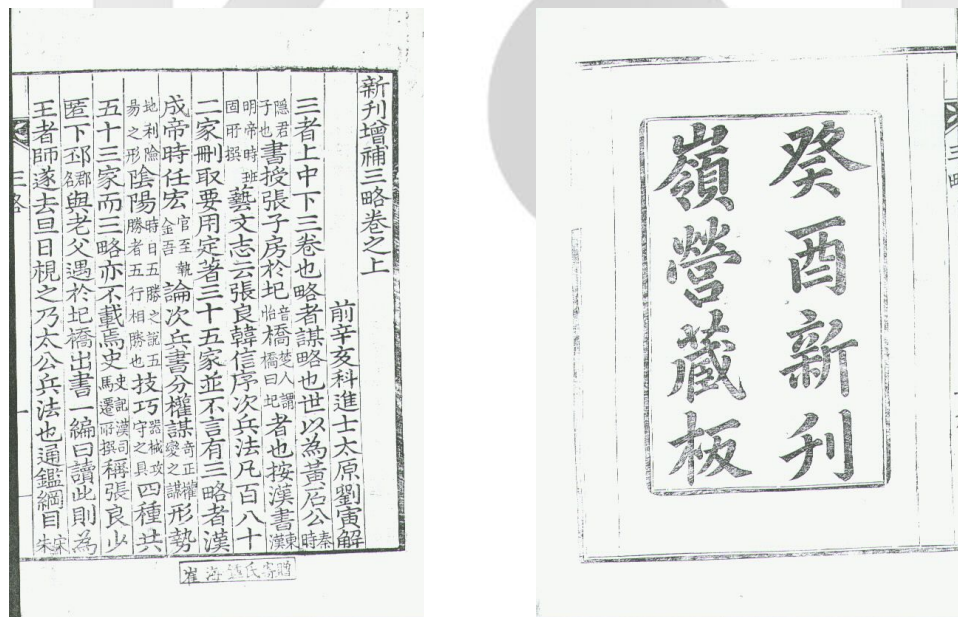
(圖-7) 完山版 《新刊增註三略直解》의 卷首 및 卷末



(圖-8) 1711년 刊行 李商徵 諺解本 《新刊三略諺解》의 卷首 및 卷末



(圖-9) 1805년京城廣通坊刊行諺解本《新刊增補三略直解》의 卷首 및 卷末



(圖-10) 1813년 간행추정의嶺營版《新刊增補三略》의 卷首 및 卷末